

# 소모임운동을 활성화하자!

## 1. 소모임은 어떤 존재인가?

소모임의 지원에 역할을 규명하는 일은 학생회 강화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조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학회, 소모임의 두리에 묶여있는 학우들을 총화하는 작업이며 학우들의 삶의 총화에서부터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① 학우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묶는 생활공동체 단위입니다. 학우들이 비교적 손쉽게 자발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단위이고, 그러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학생회라는 속속으로 자연스럽게 더욱 끈끈히 묶일 수 있는 단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생활하면서 내용을 혹은 활동을 해나가는 기본단위가 됩니다. 즉 소모임은 특별한 틀(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명감, 즉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②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통일적으로 모아가는 단위가 됩니다. 학우들의 일정 지원발령지이고 신안이라는 제속되는 이해와 요구를 소모임이라는 틀을 통해 직접 지도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이고 통일적인 이해와 요구로 모아나가는 소단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③ 개인주의가 아닌 집단주의를 형성하는 단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이 아니고 활동은 하며 자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기에 집단주의를 사람의 기본요구라 합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요구 또한 소모임 구성원의 집단적 협력에 의해서 실현가능하고 구성원의 공동의 이해라는 것으로 인해 서로의 결핍과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구성원의 결핍이 이루어지는 단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뿌리깊게 퍼져있는 개인주의를 극복하여 집단주의를 체득하는 것을 일정 가능하게 합니다. 즉 과 내에서 집단주의적 기풍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④ 모든 남학생 여학우들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⑤ 실질적으로 많은 단위에서 여학생회 일꾼을 배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⑥ 학생회 강화에 공간이 되는 대중조직입니다. (자기 본성에 맞는 활동을 보장하는 단위) 대중조직은 광범위한 대중을 포괄하는 것이 자체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조건과 실정에 맞게 건설하고 자기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대중조직이 포괄하는 대중들의 정치사상, 의식수준, 이해와 요구는 다양한 수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중조직은 이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후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는 다양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학생회는 이러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나가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회 내 체제 중 소모임은 이를 가능하게 하며 학생회가 대중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단위입니다. 이렇듯 학회, 소모임은 과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학우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끌어내며 학우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단위입니다. 이는 학생회내의 조직으로 학생회 강화에 복무하는 자기 역할을 가집니다. 다수의 학우들을 포괄하여 학생회 두리로 묶어내는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내세워내는 대중조직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 2. 소모임의 현재적 상황과 그 원인 (현재적 상황은 바라봅시다)

### 1) 학회, 소모임의 현재적 상황은?

96, 97년 백만 학도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이 정권에 의한 심각한 탄압을 받음으로써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한총련은 근 2-3년간의 한총련 사수 투쟁에 중심 무게를 실고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운동 대중화 즉, 학회,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 강화에 좀 더 주목을 들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회, 소모임을 주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은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패권적 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중앙에서 기층까지 불복을 가리치며 학회와 소모임을 무장하게 탄압해왔습니다.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이겨내고 역경을 순경으로 둘러싸고 우리는 물질적 요구,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여 운동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권의 탄압을 이겨냈던 것도 여의치는 않았지만 학회, 소모임을 비롯한 기층조직의 상황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기층간부는 기층간부대로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기적이지만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이던 때도 과 내에는 많지는 4-5개의 학회, 소모임이 존재하였고 학회, 소모임의 성격이 어떠한 낮은 수위나마 과

운동의 요구에도 맞는 다양한 내용을 마련해서 그 세대기들에게 분공을 주고 분공된 것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더라면.....

스몰린 컴퓨터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한 미국의 문화적 침투와 통상임액에 대한 교양과 의식화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세대기들의 지향에 맞게 직접 영화(물론 수준은 굉장히 낮았지만)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업 내용과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세대기의 대학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4년간의 희망과 계획"이라는 주제를 정한단편 단편 조를 나누서 분공을 하고 학우들과 인터뷰를 하고 편집하고 상영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금의 모습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니다. 역사 연구회 운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조금만 고민하고 계획을 거둔다면 그 조직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3. 소모임 건설의 전제조건과 그 의미

각 대학에서 소모임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단지 다른 대학에서 모범적으로 건설하거나 막연하게 우리대학도 한번 만들어보는 취지에서 시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학에서 소모임을 건설할 때 자기하고, 소모임 건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하는가에 대한 조직적인 공감이 있어야만 소모임을 건설하는 데 있어 소모임 건설을 위한 여러 중앙에서부터 기층운동까지 주동적으로 참여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 소모임 건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봅시다.

① 기층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단체 여학생회나 과여학생부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임 토대로 소모임 건설을 제안하며 단대나 과에서 소모임 주체를 건설하고 주체본 아니라 단대와 과 일꾼들까지 적극적으로 소모임 건설에 참여하여 여학우들을 소모임 두리로 묶어냄으로써 소모임 본 아니라 단대나 과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② 핵심일꾼과 양성의 공간이 된다. 소모임을 건설하게 되면 단지 소모임을 통해 여성문제를 심도있게 토론하고 우리의 내용을 전달하여 여학우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정의로 가지감으로써 여학우들 속에서 우리의 내용을 주동적으로 받아안을 수 있는 핵심을 발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모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주체를 출몰케 해주므로써 또한 하나의 핵심일꾼을 발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모임 주체 한사람이 출몰케 되고 그 주체가 소모임 성원들을 출몰케 해주려면 단지 핵심자는 주체만이 고인할 것이 아니라 기층일꾼 전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준비할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 작은 소모임 운영역에서부터 우리의 핵심일꾼들을 발굴, 양성해 봅시다.

③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 우리는 총학생회, 단대여학생회, 과학생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지 간부나 몇몇 학우들속에서 여학생운동, 주체적인 여성성, 자주적인 여성성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많은 여학우들에게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처지를 인식시키고, 우리 여학우들이 올바른 인식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보다 깊고깊게 고민해보고 여학우 스스로 자신의 삶속에서라도 자주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학우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고민해보고 보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단지 몇몇의 행나사 사업속에서 정면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도 중앙과 단대에서는 사업의 대중성,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필히 할것을 고민합니다. 보다 많은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여학생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토대속에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여학우들의 마음을 각 단대에서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내어 소모임이 제기되고 건설된다면 이것이 곧 여학생회 사업의 대중화, 즉 여학생운동의 대중화 실현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④ 청년학생 운동의 강화에 복무하는 장이 된다.

지금 조국과 현시세의 처지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고서는 우리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은 결코 올바르게 갈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습니다. 소모임을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처지와 내 조국의 현실을 함께 인식시켜주고 여학우들 한사람, 한사람이 자주적 의식으로 사색 하고, 우리의 투쟁에 적극 결합해 들어간다면 이것이 곧 우리의 청년학생운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조국해방을 앞당기는 길일 것입니다.

## 4. 소모임의 건설원칙에 대해서

### (1) 주체가 없는 때가책 단위

무엇보다 소모임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핵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만 배치하는 윤곽로 끝나서는 안

학생회 강화에 복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학생회와 학회, 소모임에 대한 지도뿐만 아니라 학생회와의 연계도 갖지 못하는 것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3가지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회, 소모임 자체가 소멸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심각한 경우입니다.

둘째, 겨우 주체가 한 두명 남아 있을 뿐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와 이름만 남아 명맥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셋째, 학회, 소모임의 자기 성격과, 정체성을 찾지 못하여 개별화, 계 모임화, 가족주의화 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변칙적정성을 잃고 있습니다.)

### 2) 그렇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세밀하기 전권에 의한 96, 97년 무자비적인 탄압 때문입니다.

#### ① 윤리적 탄압

물리적인 탄압과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권의 눈에 가시인 한총련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핵심에 대한 상상을 초월한 연행 검거로 인해 핵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그 파급 효과로 인해 학회, 소모임에 대한 안정적인 지도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② 비윤리적인 이데올로기 유포의 전사상의 유포

한총련 와해 해동도 또 다른 한총련 한총련 이적정규(폭력 이적이라는 이미지 유포로 거리낌을 갖게 함) 교육부 정권의 세내기에 대해 보내는 편지, 감찰의 편지를 옮기며 써주고 분열주의 유포로 한총련 내부의 분열이간 핵동 지형, 재국주의 문화, 개인주의 유포로 대학문화와 인문학운동을 말살시키는 등 사학적 침투를 교묘하고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핵심부재

핵심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지 못하는 문제와 핵심일꾼들의 학회, 소모임에 대한 지도내용의 풍부함 고민부족 등 지도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대중운동에 대한 조직과 지도의 문제

대학운동의 1년의 흐름과 일상적인 학회, 소모임의 흐름이 통일되지 않은 측면, 대중투쟁과 학회, 소모임 흐름에 대한 균형적인 지도의 부재 때문입니다.

급박하게 투쟁이 제기되는 경우 조직되는 숫자는 한정되다 보니 운동대오의 힘을 모아서 투쟁을 조직하기보다는 낮은 숫자를 동원하려는 모습으로 되면서 그나마 나름대로 흐름을 가지고 있는 학회, 소모임까지 투쟁흐름에 휩쓸리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물론 단위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결합하였지만 당장의 투쟁을 결합하여도 당면한 정세의 요구를 인식하고 다른 방도로써 투쟁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면 학회, 소모임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투쟁 흐름을 계획하고 집행할 때는 기층의 흐름을 잘 총화하고 진행하고 전체 흐름에 대한 사전 합의를 잘 거처가야 하였습니다.

#### (4) 학회, 소모임 운영 자체의 문제

##### ① 주체의 문제

주체인 일꾼(학회, 소모임 주체와 교시부족으로 교양내용에 풍부한 고민부족 등 한계 노정)

즉, 중앙간부의 부재와 재생산 구조의 허약성으로 인한 악순환의 결과

(학회, 소모임 일꾼들의 학생회 상층으로 공강이동만을 하는 경우와 학회, 소모임은 그 나름대로 사람에 대한 고충에 시달리는 악순환의 반복)

##### ② 내용, 운영의 문제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식을 고민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영상 소모임과 역사연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단편적이고 자기 정체성(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지 어슬쩍 알 수 있다.

##### ##당성당##

당성당인 신세대와 취향과 관심을 충분히 반영한 기층조직 건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총학생회 문화회에서 직접적인 과로서 신인상을 맞이하는 사업을 진행해오다 다음해에 그 세대기들이 직접 사업 사업을 통해 조직 형태를 취하였고 부족하지만 TV, 비디오, 카메라 등 기본적인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상당한 힘을 모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직을 운영하는데 청초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모습이 1년의 흐름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올 초도 마찬가지로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세대기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는데 불구하고 총학생회의 사업과 투쟁 일정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3월이 다 지나기기도 전에 대부분의 세대기들이 조직생활을 하지 않고 떠나 버렸습니다. 만약 세대기들의 지향과 요구에도 맞고

린다는 것입니다. 주체를 마련했다면 동시에 그 주체를 단련하는 과정으로 되어야 합니다. 조직사상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천활동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해야합니다.

### (2) 건설원칙(주체가 없고 소모임이 없는 경우)

#### ①실사, 연구단계

②조직화 단계-일대일 조직화, 사업과 투쟁에서의 조직화

#### ③초보적인 사업정착

##0 대학간부의 경험을 통해 알아보자##

그 간부는 1학년 2학기부터 과에서 소모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공강이 실시, 연구단계였다. 과 활동기가 전후반 상태에서 오직 혼자서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의 대상을 1학년 동기를 주 대상으로 정했고 상반기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동기 50명을 분석(7학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 자기의 기층에 지내는 친구, 한반도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판관근거가 미약한 친구, 사회현실에 대한 관심이 없는 친구, 매우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친구 등(비록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나름대로 분석한 근거를 취합해서 50명을 A그룹에서 F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A그룹에 가까울수록 주요포섭(대상자) 설정하고 우선 개인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소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정을 할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공의 특성을 살려 성격을 설정하려 했지만 전공공학 자체를 운동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들이었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유예소모임을 고민하기도 했지만 그 모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기능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판단하게 된 결과 기능을 배우는 시간을 확보하기 원했다는 생각이 앞서서 그것도 그만 두고 결국은 사회과학 연구모임으로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모임의 성격을 결정하고 나서 그 간부는 본격적으로 일대일 조직화 하였습니다. 집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술자리도 갖기도 하는 등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담화를 통해 대상자와 친밀감을 높이면서 정시사업에 진행했습니다. 이과정에서 총화력을 마련하여 만남을 통해 얻은 소감을 그때마다 기록해서 조직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쌓아갔습니다.

최초의 성취가 보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친화력(대상자) 친분을 갖고 있는 2명에게서 소모임에 참가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 간부는 그들에게 역할을 분공해 주었습니다. -분공은 자신의 주변의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소모임에 참가시키기 위한 것들을 하기로 결심했었다. 그 간부는 지속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활동을 가져갔습니다. 결국 자신이 설정해 놓은 C그룹에 망라되어 있는 친구들까지 만나는 성과로 10여명의 과 동기들을 조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비모임을 두차례정도 진행한 후 정기적으로 소모임 창단모임 첫 주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전체가 모여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협의하고 소모임의 명칭과 주체, 소모임의 규율, 모임의 횡수, 회비등을 결정하고 초대회장을 선출했습니다(그 간부가 회장이 되었다). 그 간부는 첫모임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직화 사업은 그 후에도 계속되고 물론, 중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지만 있었습니다.

모임이 소모임으로 초보적인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학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동기였는데 모임이 없었는가 하여 수련되고 가고 매우 초보적인 형태의 사업을 통해 소모임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고 모임의 내용도 경험을 통해 풍부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소모임이 어느정도 규모에 도달하게 된 것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사업의 첫발을 뜨고 소기의 결실을 보게 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한 상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간부의 일을 알려보면 하우에도 수십번씩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포기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변화, 발전의 가능성을 믿고 이리저리 사색하면서 되었습니다. 모임을 분석해보면 그 간부를 조직적으로 지도했던 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화하고 나서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모색해 주었으며 과제에 대한 분공을 잘라내 주었습니다. 또한 그 간부의 정치사상적, 이론실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정적인 사상성운을 진행한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부의 고도의 책임감과 헌신성에 의한 성과였던 것입니다.

## 5. 소모임은 잘나가야 하면서 - 운영 원칙도 중요합니다

### ①주체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그 주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그 모임의 운영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든 생명이 짧고 구제적인 내용과 대안을 세출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사람에게 주체를 맡기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게 책임지라는 강박관념을 줌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발전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와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함입니다. 주체가 자기 사업속에서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생활일정들을 잘 짚어주고 그 주체 대인들도 만들어보면서 주체 스스로가 핵심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간 대학의 소모임 주체들이 아예 고민도 안하고 안하무인으로 달려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체 스스로가 기간의 소모임 운영에 어떻게 복무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일해왔는지 되돌아보고 할 일 시기이던 우리 주체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성원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주체라는 주체들의 힘있는 모습

을 보여줍니다.  
 ②자기 내용을 개발해야 합니다.(전문성)  
 줄거리가 단조롭거나 무실한 소설책은 지루한 법이며 팔리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사상이 깊이가 얇은 소설은 감동이 없고 설령 다 읽는다 해도 보통 넘는 것이 없어 기억에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소모임의 내용이 빈약하면 그 소모임은 생명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새나기가 그 모임에 참가하게 되는 기본동력이 그 모임의 내용과 성격에 관심을 갖게 해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정치사업하는 과정에서 그 선배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참여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모임 운영에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용이 풍부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는 것이 운영의 문제라면 그 조직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학우들에게 여성으로서의 문제를 인식시켜주고 여학우들이 유능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소모임이 단지 학습을 중심이로한 여성문제 연구만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대중은 읽는 것보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학습을 중심으로한 여성문제 연구회나 영화를 보면서 여성의 현실을 바라보고 토론하는 소모임, 대중매체속에서의 여성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소모임등 소모임 주체가 주동적으로 잘 고민한다면 여학우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소모임을 여러형식과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모임의 내용이 주로 학습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척 지루하고, 뭔가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하려고 하지만 딱히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고 예전의 방법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학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학습의 내용을 미리주고 룬당형식으로 만들어 룬당공부를 해봅시다.  
 -학습의 내용을 주체가 일괄기조하고 성원에게 의견을 묻는 것보다 부분별로 나누어서 성원전체가 참여해 지기나름대로 준비하고 자기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해 발표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봅시다.

-주체가 조금더 고민해서 월단위로 한번호 기간의 주요내용을 뽑아 퍼즐달걀풀이등을 만들어서 성원들에게 경쟁심도 심어주고, 기간의 내용을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봅시다.

-비디오도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에 객관적으로 평가 좋은 여러 비디오들을 보면서 그속에서의 여성의 성격 문제등을 얘기해보는 방법들도 통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다양하고 폭넓은 운영 프로그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과정에서 소모임을 운영하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그 경험들이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세미나 위주의 운영을 탈피하고 현장실구활동을 강화한다든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사토론, 기כון 방문, 궁지 탐방, 장기수 생성반 또는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통일일이 되도록 매체를 통한 학습 등이 있습니다.

->친화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자.(학습부의 뒷풀이, 야유회, 모꼬지 등)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하루 한번이나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꼭 모임을 가집시다.

->여러 형식과 내용으로 운영합시다.(비디오, 사진, 영화, 시집 등)  
 ->일, 주단위, 월단위로 작은 사업계획을 만들어 봅시다(여성문제에 대한 분야별 선전하는 날, 단체나 타사 방문하는 날, TV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토론하는 날, 영화보고 토론하는 날, 학습하는 날 등)

무엇을 하든지 주체가 올바르게 서있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주체 스스로가 여성운동에 대한 신심을 높이고, 올바른 서기 위한 주동적인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③성격이 비슷한 모임들과 연계를 잘 가져 갑시다.(타 단체인 타 대학, 지역파의 연대활동)  
 경험을 서로 배우고 모범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활동의 폭을 넓혀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과 관련된 수업, 율동, 풍물제 연합 등을 예로 들 수 있겠고 서로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체육대회에서부터 율동공연, 풍물 공연, 파소삭시 공연 전시회, 공동세미나 등을 통해 서로 배우고 자기 전문성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④성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도를 잘해야 합니다.(정치사업을 앞세우고...)  
 개별일꾼에 대해 지도를 잘하지고 하는 것은 개별일꾼의 고민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나서는 후과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헌명의 일꾼을 잃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루체(일꾼 연대문제, 전담문제)가 결국 전체 소모임의 문제로 확대되어 위험 실타 래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하기에 개별지도도 잘 해야만 소모임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개별지도도 잘한 것은 것은 개별일꾼의 고민 충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책과 사교교양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일꾼에게 분공을 주고 충족하는 과정까지가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⑤연례활동을 정상화 해야합니다.  
 학습회의 1년의 흐름을 보면 선거, 겨울일중, 새내기 배움터, 개강사업, 모꼬지, 대학 출범식, 지역 및 전여대월/한촌 출범식, 농활, 방학, 여름농활, 학습회 및 대동제의 흐름과 3.1, 4.19, 5.18, 6.10, 8.15, 10.3, 11.3투쟁등 큰 맥에서의 사업과 투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총여 중앙은 소모임에 대한 지도를 진행할 때 이러한 흐름에 맞게 지도내용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마련하여 지도하여야 하고 소모임 또한 이런 큰 틀에서 자기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주동적으로 계획하고 고민하여야 합니다.

⑥정치(解)인 활동보다는 동력(勵)인 활동을 중심으로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연구회가 43인종청장과 관련한 세미나를 준비하는 과정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43과 관련한 학습 한 두 번과 토론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는 답습을 반복하는 경우는 소모임에 활력을 줄 수 없을뿐더러 생동감 있게 세미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동적인 준비라면 사전에 준비학습, 43에 대한 학우 의견조사, 저주도 기행등 통한 현장 학습, 43관련자 취재등 다양하게 진행하고 세미나를 통해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으로 세미나를 진행 할 것입니다.

-최장집에 그날한 학습내용에 대한 객관식이나 주관식 문제들을 만들어서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학우들에게 미리 선전해놓고서 여성문제에 대한 퀴즈대회를 개최해봅시다.

-신운 스크림, 신운 주요기시들을 선전  
 -소모임의 명의로 주단위로 종이프람 쓰기

-소모임단위로 생활규를 속에서 지각하는 사람에게 1000원씩 걸어서 책을 사기도 하고 선전물을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여성문제를 시리즈 선전물로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배포해봅시다. 문건 한장이라도 좋습디다. 우리 성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진 선전물이려면 학우들에게 선전의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준비하는 성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되리라 믿습니다.

⑧학우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합니다.  
 학우들과의 사업을 잘하는 문제는 소모임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귀결됩니다. 또한 자체의 활동력을 확대시키고 생명력을 보강하는 사업도 됩니다. 동시에 소모임에 보다 확대 재생산하는 의식화, 조직화의공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소모임의 특성과 고유의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통해 학우들과의 사업을 가져가야 합니다. 풍물소모임인 경우에는 과학우들을 대상으로 풍물배출력을 정기적으로 열어 그들이 익히기 쉽고 재미있는 기적으로 선택해 풍물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어가에 흥겨운 인양도 보급하여 과학우들의 습지나 집단 놀이를 할 때 과학우들이 모두 어휘를 들고 같이 부를 수 있다면 그 과인의 진풍경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며 소속감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⑨양중사업의 중요성  
 조직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중사업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마음 먹은대로 쉽게 되는 것이라면 굳이 소모임 활성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것이며 운동의 대중화를 강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중을 발동하고 민중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고도로 특정한 공정을 요구합니다. 운동자체가 사람의 가장 목적의식적인 사회적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방중활동은 소모임의 내재장비와 인원의 유력한 공건입니다.

한일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방학기간에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소모임의 향후 활동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방학기간에 학우들과의 사업을 준비하고, 소모임 자체의 단련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활동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겨울 방학은 더욱 중요 합니다. 소모임 1년 사업이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나기사업은 미리 준비하는 기간이 다른 어떤 겨울방학입니다. 방학기간에는 학우들에게 반수기에서부터 정상적인 학습생활, 기행활동, 수련, 소모임 운영에 대한 연구활동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방학은 청년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황금같은 시간입니다. 때문에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주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소모임 사업의 성과를 백방으로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됩니다.

⑩공동체 의식 함양  
 소모임의 성격이나 처지가 비슷한 곳과 교류나 연계등도 좋은 방도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말체육대회나 야유회, 다목적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⑪그 외 모임 운영에 있어서는 방법  
 -어떤 모임이든지 구성원들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모임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학습을 한 후에는 꼭 단련하게지도 뒷풀이를 합니다. 풀방에서 피자를 함께 먹는다거나 차를 함께 마시거나 가능하다면 술도한잔

-모임의 수칙을 정합니다  
 수칙을 정할때는 모든 구성원이 토론으로 만장일치를 거쳐도록 하여 이것을 경우의 가벼운 벌칙등도 편집은 방법등의 하나입니다.

-학습을 할때는 계기로 모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야유회나 모꼬지 등을 통한 서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나 다른 단체 여원들간의 교류를 통해서야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도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만드다는 부듯함을 느끼게 해 줄 것입니다.

## 6. 소모임에서의 학습내용

일상적으로 소모임을 운영하면서 학습내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됩니다.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 것인가, 어떤 단계로 내용을 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문제를 고민하게 될것입니다. 소모임 성원들이 일반학우들을 대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

학생운동에 대해 내용이나, 여성운동의 기원, 사회속에서의 여성의 위치 등은 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어렵고 난해할 것입니다.

우선 성원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이 여성으로서 어떠한가에 대한 것부터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삶을 얼마나 주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지, 자신이 여성임에 만족하는지, 주위사람들이 말하는 여자다운 여자, 학업 여자가 어떤 여성상인지 등 성원들이 직접 생활속에서 느꼈던 것부터 함께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성원들의 생활적인 토대에서부터 주위의 여러 시사회본(영화나 TV잡지, 여성의 상품화,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노동과 여성노동과 맞물려 학습이나 교육내용을 짚어나간다던 쉽게 공감하고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우리의 내용을 밀어려고 하지 맙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채워나기면서 구성원들이 진정한 자주적, 주체적 여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 7. 자기그림 본격적으로 소모임은 건설해볼까요?

### -소모임의 소재 고민합니다.

현재 여학우들의 정서와 요구에 맞게 참신한 소재를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영화 보기를 소재로 선정한다면 일단 영화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임 것이고, 타사업 또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것을 소재로 선정한다면 일단은 통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이 모임 것이며 실천활동까지 바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기행소모임, 대중문화 비평소모임 등 참신한 소재들을 고민해 봅시다.

### -소모임 구성원 모집

거울방학이므로 학교전체의 새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합니다.

### ①기본 선전을 합니다.

총여 새터 공간과 단체 새터 공간에 자보 선전으로 새나기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방중부터해서 학기중에도 소모임에 대한 설명과 모집 광고를 학교 곳곳에 선전합니다. 기본 자보선전과 함께 인터넷 자유게시판 또는 각 학생회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해서도 선전을 합니다.

### ②새나기 사업에서 소모임을 알려냅니다.

총여 새터를 진행할 때 소모임 소개, 설명을 하고, 뒤풀이 시간에 일대일 만남을 통해서 여성문제에 대한 교양과 함께 소모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후속작업으로 전체적으로 연혁식을 받게 될테지만 일대일로 만나면서 친분이 쌓이면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 받아서 이후에 개별적으로도 계속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소모임으로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각과 새나기 사업과 단체 새나기 사업에도 참석하여 총여학생회와 여성문제에 대해 교양 해설하고 소모임에 대해서도 알려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뒤풀이 공간에도 참석하여 일대일로 조직화 합니다.

### ③의식화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화를 할 때 친분이 바탕에 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문제의 심각성, 소모임에 대한 흥미 유도와 중요성에 대해 풍부하게 정치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친분만으로 소모임에 들었다가 이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 소모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소모임에 들지 않았을 경우, 그 새나기는 비록 이후에 소모임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총여학생회 사업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고 우호적 대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때는 의식화를 반드시 선행하여야 합니다.

### -타이소모임을 모델로 소모임의 구체적 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단위에서 참고하시고, 다른 소재로 소모임을 만들더라도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 [타이 소모임]

1.주체 마련과 기본적 단련  
 조직적 논의를 통해 주체를 설정합니다.  
 주체는 방학기간 최소 여성학강의와 새여성학 강의는 정독을 하여 전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 2. 본격적 준비

조직적 논의를 통해 타이소모임으로 소재가 결정되었다면 주체를 중심으로 타이사업에 있어서 활동과 교양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가져 갑시다.

### -고민해야 할 내용

1)지역에 가까운 타이소는 공부방이 있는가

2)활동방법?

3)활동내용

4)조직적 총화 구도?

5)대중과의 사업을 어떻게?

[가상 계획]

1)명세임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단체 소속인 타이소는 공부방이 좋을 듯합니다

2)활동방법

- 학습

-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격주로 금요일 학습(또는 세미나)를 한다.

-월요일에는 여성학 학습, 수요일에는 타이사업과 관련한 여성문제 학습, 격주로 금요일에는 실천활동 프로그램 일련.

-학습계획은 1년치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일정의 반수를 고려해서 미리 짜놓을시다.

-주체는 그날 학습할 주제와 관련한 기본적인 교양자료(여성학 강의, 새여성학 강의를 기본으로)를 일주일 전에 구성원들에게 나누어준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연대단체나 여성관련 사이트들을 통해서 풍부한 내용으로 모임을 준비한다.

-구성원들은 받은 자료 이외에 다양한 방도로 여러 가지 정보나 사례등을 조사하고 적극적인 고민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

3)활동내용

-월요일 학습

전체적인 여성문제를 차근차근 풀이한다.

학습전에 매주 나오는 여성신문 토론티를 함께 하면서 시가미디의 여성정세를 놓치지 않고 파악한다.

주제와 관련한 영상학습 또는 비디오 학습도 병행한다.

1단계 (1학기)

- 성장과정에서 주임되는 환경에서의 여성문제,

대중에서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문제

상성품화와 성폭력에 관한 내용

2단계 (여름 방학)

- 호주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애매촌, 기지촌 등 사안별 내용과 한국 사회모순과 여성문제

3단계 (2학기)

- 여성운동이론과 여성운동사

-수요일 학습

- 실천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한다.

여성노동자 문제와 기사노동 및 육아에 관련된 내용 - 비정규직문제, 모성보호 및 여성의 복지(여성정책)등의 내용이 있을 것이다.

-금요일 실천활동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봅시다. 기본 농활 준비 할 때 어린이반을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주체를 정해 봅시다.

부모님을 사뭇하자. 내나라가 제일 좋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때부터 주입되기 쉬운 성역할 깨기 성공회 등..

-방도를 정해 봅시다.

동화읽어주기, 율동가르쳐 주기, 그리기, 만들기, 집단놀이, 퀴즈놀이, 비디오 함께 보기 등 이외에도 참신한 방도들을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짜고 실천활동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진행하고 성과와 한계점 극적 과제들을 찾아 봅시다.

#### 4. 조직적 총화구도

소모임 주제는 1년 활동계획 속에서 매월 활동계획을 조직(학년단위)과 함께 수립합니다. 그리고 한달동안 적극적으로 소모임 사업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매주 소모임 활동에 대해서 총화하고 월말에는 그달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조직(학년단위)과 함께 평가하고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대총화의 사업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 매주의 학습과 실천활동 내용을 최상실 선전으로 알린다.
- 실천활동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진과 함께 자료로 선전한다.
- 안달에 한번 소식지를 만든다.
- 대중사업 (대학축제와 8월 학교 또는 지역 동족대 문화공연에 아이들과 함께 만든다)
- 학우들과 함께 하는 공개세미나, 토론회를 만든다.

## 새내기사업, 본때나게 해보자!

### 1. 새내기사업 준비역량 만들기

새내기사업에서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내기사업의 준비역량을 꾸리는 것입니다. 즉, 2학년 이상의 선배들이 새나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자신이 새내기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새내기사업의 준비역량을 꾸리는 문턱을 간파한다면, 새내기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티할 때 여학 중앙본부 및 영단 배급까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럼, 새내기사업 준비역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한번 고민해볼까요?

#### 1) 의식화 목표

여성문제에 대한 더 깊이있는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총여학생회, 단대여학생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어 새내기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게 한다.

#### 2) 조직화 목표

- ① 총여 : 1차-단대(여외부) 일꾼들 / 2차-여성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우들 / 3차-과(혹은 단대)별로 임시주체(총여 세티에 결합하는 것으로 해서)
- ② 단대 : 1차-여외(부) / 2차-과별로 임시주체

#### 3) 의식화 및 조직화 방안

기본적으로 총여 우리에 학습모임(소조)으로 묶어 여성문제 전반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여러 방도 중 대학 상황에 따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 ① 선·후배 조모임

총여일꾼 한명과 후배를 여러명의 조모임을 만듭니다. 내용 : 기본적으로는 수위에 따라 여성문제 전반 / 시간별 여성문제 / 시청각자료 활용 등의 내용으로 토론하고 학습 특히 2학년의 경우는 자신의 새나기시절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리랑식선 등 통해 얘기하면서 자신이 새나기 시절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12학년 후배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자신의 새나기사업 1년 계획을 세우게 해줍니다.

##### ② 선배피기 학교

이렇게 몇차례의 모임을 가지고 나서 집약적인 내용을 선배피기 학교에서 총화합니다. 기본적인 강연(인생관, 여성의 삶에 대한 현대단체론의 강연 등 참가자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짚으면 될 것) 및 토론과 새나기사업 기조와 활동에 대한 공유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③ 세티 기획단

새내기사업 및 세티의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면 세티 기획단의 형식으로 꾸립니다. 세티 기획단은 새내기들의 의식조사, 세티의 구체적

#### 총화구도. 뒤돌아보며 함께 가서 조직화하는 것은 더 효과가 크겠죠.

#### ④ 여학일꾼들이 자기 과 후배들에게 연하해서 세티로 조직화하기

새나기들은 아직 숙스러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오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안입니다.

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를 통해 사업을 끌고, 단대/과 일꾼들에게 여학 세티에 대해 잘 해설하고 정기적으로 조직화 점검하기  
여학일꾼이 갖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에서 사업을 제대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대/과 일꾼들이 새나기들을 조직화해 여학 세티로 함께 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월에 들어가기 단대/과일꾼들도 새나기사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1월부터 여학 세티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모든 단대/과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몇 과를 선정해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학 세티가 가뭄위에서 단대/과일꾼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여학 세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 4. 새내기사업의 여러 형태와 내용

#### 1) 세티 - 월결

#### 2) 여학우 간담회

주로 과, 단대에서 새나기사업을 할 때 새나기들을 챙기는 사람이 남자선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학생들이 23학년이 되면서 과에서 소외되고 취업고민을 시작하는 등 개인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새나기들도 특히 학생회일꾼을 제외한 3학년 이상의 여자선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나기들이 존경하는 선배들은 남자선배나 여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선배들이 남자후배들을 중심으로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학우 간담회는 새나기여학우들과 여자선배들의 만남을 우선하는 자리입니다. 새나기여학우들과 여자선배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성과입니다. 여자선배는 과나 단대에 더 정을 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만났던 새나기들 진부어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챙겨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새나기여학우들은 여자선배들에게서 대학에서 어차로 살면서 힘들었던 점들을 들으면서 대학에서 어차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자애를 쌓을 수 있는 계기죠. 여자후배들은 여자선배들을 존경하고 여자선배들은 여자후배들을 챙기는 아름다운 문화로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죠. 술자리에서 시작하는 것도 컵집에서 숙취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3) 여학생회 간담회(원박동 놀이)

과/단대에서 진행되는 세티/새나기간담회에서 하나의 관료로써 새나기들이 직접 여학생회를 비롯한 여러 학생회, 동아리 등에 방문하여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로 여성문제와 여학생회에 대해 짧은 시간동안 함께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4) 의식화하는 좋은 방도이지만 조직적 성과를 남기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학단위 소모임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새나기들에게 방명록과 이메일주소 등을 쓰게 하여 여성문제에 다소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소모임에 묶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 4) 단대/과 세티에서의 강연

이런 경우에는 여학 일꾼이 직접 강연을 하는 것으로 단대/과에서 제안을 해오거나 여학단위 단대/과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강연의 내용은 주로 성교육, 성폭력, 대학에서 여성(그리고 남성)으로 산다는 것이 강연은 고등학교때까지 겪어온 여성문제에 대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양한 여성문제 전반 등의 내용입니다. 그외 일꾼부 등 사안별 문제에 대한 강연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각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차트/트렌지 도표, 그림, 시청각자료 등등

#### 5) 학교 OT에서 성교육

대부분의 학교에서 대학본부가 전체새나기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대부분 재미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나기들이 오만만큼 유익한 의식화 공간입니다. 새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해 대학본부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고심하기 때문에 학교 OT에서 성교육을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학일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유명한 성교육 강사나 지역여성회, 민우회 등에서 성교육 강사를 초청합니다. 대신 총여가 직접 강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교육 강사의 경우 강연료 비싼데 대학본부 돈으로 새나기들에게 성교육을 하면 일익이죠입니다.

#### 6) 그외 증문위/단대/과 세티 관호름과 자료집에 대한 제안

단대/과에 여성문제 관련 비디오 시청이나 위에서 얘기한 강연(혹은 초청강연) 등 단대/과 자체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직접 일익이 찾아다니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미리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와 단대/과에 제안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남기기로

인 관호름 및 준비, 세티 선전 등의 활동을 합니다. 물론 실무로 빠지지 않게 총여에서 잘 도와주어야겠죠.

#### ⑥ 세티 교시모임

세티의 기본내용이 나오면 세티에서 할 내용들을 미리 2학년 이상의 선배들을 모아놓고 교양 및 토론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티에서 불 시청각자료까지 함께 보면서 세티에서 새나기들이 토론할 내용과 방향,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교시모임 실천과제 중 세티 관호름 중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할 수도 있고, 세티 선전, 새나기와 만나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2. 새내기사업에서 기본적역량 인식화와 내용

#### (1) 기본적인 여성문제에 대해 인식시키면서 여성문제를 공통의 문제로 이끌어내며, 여성문제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때까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여성문제를 새나기들 스스로 꼬집어낼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어고와 남고, 공학 등의 급준, 어고와 남고의 교과목, 선생님에 의한 성폭력, '여사리서'남자리서라고 배워온 것들 등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도 좋을 것입니다. 혹은 대중문화를 상당히 많이 즐겨왔기 때문에 그에 기반하여 대중문화 속에서 성역할, 매체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예를 들면 뉴스 등), 성상용어, 여성남성이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통의 문제이며 함께 풀어야한다는 기초적인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학강의(개정판), 3장을 참고해 사회, 교육, 가정에서 주입되는 성역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 (2) 대학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해 인식시키면서 해결의 의지를 키워줍니다.

자신이 직접 느꼈던 여성문제에서 출발하여 대학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별 여성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시야를 키워줍니다.

새나기들이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일어난 여성문제에 대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장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에 대해 새나기들이 가지고 있던 왜곡된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울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나기들이 곳곳에 산한 여성문제를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과제에서부터 직접 해결해나가고자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학우의 경우에도 기부장제의 희생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겠죠.

#### (3) 여학생회에 대한 주인공의식을 만들어줍니다.

여성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속에서 여학생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학생회에 대한 애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이라는 정체감을 느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애정과 주인공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3. 새내기사업의 조직화와 과외부와 방도

#### 1) 과제

새나기사업을 통해 총여 / 단대 / 과외부(부)의 강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모든 일꾼이 새나기들을 조직화하는데 발동되어야 합니다.

#### 2) 방도 (여학우 세티를 중심으로)

새나기사업은 사람을 잘 낚을 수 있는나 미느나하는 문제라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학일꾼 모두 각오있고 조직화를 아주 톡고 대담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① 과/단대를 통해 파악해 전화로 무작위로 하는 것은 직접 새나기를 조직화하는데 유익한 방안입니다.

모든 새나기들에게 다 할 수 없지만, 조직화 목표의 3배~5배 정도 이런 식으로 역량을 맞게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몇일에 걸쳐 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화 목표의 3배로 목표를 잡았을 때 조직화 목표가 500명 150명의 새나기들의 명단을 붙습니다. 그리고 세티를 준비하는 사람이 3명이려면 일일출동만 하루에 5명에게 전화를 하는 식으로 하면 그리 막대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 ② 대학본부와의 협의와 통해 대학본부가 새나기들에게 발송하는 문서에 여학 세티 제안서 및 참가신청서 발송하기

③ 새나기들이 모인 공간 최대한 활용하기  
대학/단대/과 오리엔테이션, 합격증 배부, 과/단대 세티 등에서 총여 유인물을 뿌리는 것과 함께 세티 홍보를 세티 기획단 및 참가신청서 등을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총여 세티 홍보단을 꾸려 과/단대 세티에서 받은 문화공연을 통해 새나기들에게 인상을 남겨주는 것도

한 곳의 주제들을 한데 불러모아 한차례 교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대/과에서는 주로 세티자료집 내용을 아주 부속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총여에서 쉽고 거부감없는 여성문제에 대한 내용을 대외체계를 통해 전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여성다움/남성다움에 대해 자신의 모습 체크하기, 심자말하기, 성폭력, 성교육 등등 많은 내용을 고민해줍니다.

### 5. 세티의 프로그램

- 여학 세티나 전반 새나기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성문화 강연회

우리가 초,고등 학교에서 배운 성교육은 '여성 성적으로 무지해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편견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양되는 대학 생활에서 연애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왜곡된 성지식을 가진 남학우들이 그 대상이 된다면 여학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교육이란 그들이 성지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성 문화와 성교육, 그리고 피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2) 장기지랑

여성의 인으로 여성이 주체가 되어 성차별적인 드라마나 노래를 반대로 바꾸어보는 시간

#### 3) 체육대회

대학의 체육대회는 '남자 체육대회'라고 할 만큼 여성이 걸이 할 종목이 없습니다. 구기 종목을 같이 할 수도, 다른 종목을 할 수도 없게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적인 것이라 할만한 경기, 고무줄 씨기들의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여학생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남학우들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배구구, 단체 줄넘기, 장애물 릴레이, 인간 굴자 만들기 등등. 구기종목도 여학우들끼리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보통 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남학생들의 경기에 여학생들 몇명을 끼워넣는 방식은 오히려 여학생들을 더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씨피구도 자리를 때때로 바꾸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위에 여자기 숨는 것이므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한다는 기본인식에 기초한 것이므로 좋지 않습니다.

#### 4) 촌극 공연

세티 기획단 등에서 미리 준비하여 여성차별, 성상용어, 이중적 기준을 가진 성문화 등에 대한 풍자의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작년 경북대 사범대 여학생회에서 공연한 심들들은 심들처럼 페르디하여 성폭력, 성상용어, 여성차별 등을 풍자한 것입니다) 새나기들에게 작로 토론을 하게 하고 선배가 도와주어 세티 안에서 위와 같은 촌극이나 역할극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역할극은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겪는 성차별적 상황,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정하여 각 조의 구성원들이 그 상황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기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맡아 올바른 해결책을 도모하는 촌극입니다. \* <심들잔>을 첨부합니다.

#### 5) 동화 다시 쓰기 / 드라마 다시 만들기

여성을 풍자한만 존재로,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던 동서양의 다양한 동화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발표할 수도 있고 위에서 얘기한 장기지랑이나 촌극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 6) 초청강연회

초청강연은 여성단체를 통해 어느 한 부분의 여성문제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 제이있게 얘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성노동자, 일본군 '위안부', 여자선배 등 여성의 삶의 경험에 대해 깊게 듣고자 할 때도 아주 좋습니다. 단, 초청강연회에 있어서는 초청강연이 세티의 의의와 목표에 어울리게 하기 위해 강연자와 미리 내용에 대한 합의를 보고 내용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7) 여성공간 간담회

여성노동자, 성폭력상담소, 여성회, 민우회, 정태일 등 여성단체의 성격에 따라 조별로 다른 여성단체에 방문하게 합니다.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그 단체와 관련한 여성문제에 대해 듣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조별로 각기 다른 과제를 주어 다음날 발표하게 합니다. 발표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배운 것들 토대로 촌극이나 노래, 율동 등을 직접 만들어 읊 수도 있겠습니다. 세티 허위일익이 마

치는 시간에 해야 할 일을 보장할 수 있고, 새내기들끼리 힘과 자력을 모아 발표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배들도 한두명씩 따라가되 선배들은 길안내와 가끔 새나기들 도와주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나기들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달문을 땀 때까지만 도와주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여성단체를 방문하여 새나기들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되는지 등에 대해 협의를 보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단체와의 연대사업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 8) OX퀴즈 혹은 글든벨

다양한 여성문제에 대해 OX퀴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뉴스거리가 되었던 여성문제를 가지고 글든벨 형식으로 진행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단, 너무 많은 사람을 떨어뜨리면 재미가 없어지거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 힌트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 9) 비디오 시청

요즘에는 여성문제에 대한 각종 비디오가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사안별 여성문제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여성단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기존에 있던 비디오에서 여성문제를 뽑아내 토론하게 하는 것이 새나기들에게는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 10) 성에 대한 솔직한 얘기하기

성에 대한 필기지 문장을 적은 종이를 한 장씩 나누어줍니다. 단 문장 속에 빈칸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은 \_\_\_\_\_이다(하)고, 나는 성에 대해 \_\_\_\_\_, 결혼, 성, 사랑은 \_\_\_\_\_관계이다, 등등 조금은 추상적인 문장을 만들어 한 장씩 나누어주고 거기에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적게 합니다. 너무 생각하거나 정답을 적으려 하지 말고 바로 생각나는대로 적게 하고 그것을 설명합니다. 한 문장을 돌아가며 얘기하고 나면, 사회자나 교사는 그것을 억지로 하나로 모으려 하지 말고 모두의 생각을 존중해주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솔직한 얘기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친하게 되었을 때 하는게 더 좋지요.

### 11) '여자니까, 남자니까' 벌칙주기

세로베율러형 행사기간 또는 일정한 시간동안 '여자니까,남자니까' 또는 '여자답게, 남자답게'라는 말을 한 사람에게 벌칙을 주는 놀이입니다.(세종대왕 놀이의 한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숫자를 하는사람에게 벌칙주는 놀이.) 이는 '여자니까,남자니까' 또는 '여자답게, 남자답게'는 여자와 남자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이를 함으로서 상상 이물로서 부르는 습관을 가르면서 여자와 남자로서보다 한 인간으로 바라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여자니까,남자니까' 또는 '여자답게, 남자답게'로 하지 않더라도 '여자가 왜, 남자가 왜'등으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일정시간에 하지는 식으로만 하면 별로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세종대왕 놀이를 하듯이 선배들이 '여자니까, 남자니까'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평소에 생각했던 성역할이나 여성,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얘기할 수 있게 하듯이) 새나기들에게 유도하고, 새나기들이 유도당해 그 말을 하게 되면 아차 하는 마음에 웃게 됩니다.

### 12) 양성평등적인 대응놀이

남학생들이 다리를 만들고 여학생가 건너가게 하는 대응놀이는 연약한 남학생에게 '힘을 길러야 했구나', 풍성한 여학생에게 다이어트의 생각을 들게하여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존에 해왔던 대응놀이를 다시금 되짚어보고, 더 다양한 놀이를 배우기 위해 전통놀이를 연구하는 단체나 동아리에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돼지서클, 인간 사물놀이 같은 경우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 13) 반성폭력 학칙 설명회

학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의 학교 차원의 해결을 위해 재정운동중인 반성폭력 학칙에 대한 교양

### 14) 그 외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봅시다.

실무서 토트 등 TV를 통해 새나기들이 익숙해져 있는 방식에 위에서 제시된 여러 내용을 결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6. 새내기 후속작업

새터 후속작업은 새터까지의 과정보다 2배, 3배 훨씬 중요합니다. 새터까지는 열심히 하고 성과라고 진행하고서도 후속작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지 못하고 후속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므로써 새터에서 만난 새나기들을 한방도 못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새터 후

속작업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새터 후속작업에 대한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새터 준비를 하는 모든 일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1) 계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며 개인적 친분을 쌓아가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 2) 단어나 과외회(부)가 있는 단위의 새나기는 단어나 과외회(부)로, 단어가 없는 단위의 새나기는 총여로 묶습니다.

#### 3) 소모임으로 조직화

소모임 주제에 따라 새터에서 소모임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예기와 결성(가)권유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모임 사업에서 따로 얘기될 것입니다.

#### 4) 새터에서 짜여진 조모임 계속 운영

소모임보다는 낮은 결합도이지만 새터에서 짜여진 조모임을 진행하게 합니다. 조모임으로 정규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계모임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적인 내용 마련이 중요합니다. 한두가지의 여성문제에 대한 토론, 매체에 대한 비평모임 등 고민해보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모임과 마찬가지로 외화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 5) 규정성있는 모임으로 모어나갑시다.

오는 3월 13에는 '워안부' 할머니들의 50차 수요집회가 있습니다. 수요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여러 다른 집회에 참가하는 것보다 부담감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새나기들을 수요집회 참가인으로 묶어냅니다. 그리고 수요집회 참가를 총화하는 과정에서 다스린 총여 출신실/산/문/예/단/이 중 대학 사정에 따라 등으로 묶어냅니다. 가끔 농담조로 얘기하듯이 3월까지는 새나기들에게 휴를 주문 안합니다.

## 7. 새내기사업 준비, 한눈에 보기

### 1) 새내기사업 준비역량을 만드는 단계

새내기사업 준비역량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 등 전반 계획 수립 실제 모임 성사

### 2) 새내기사업 계획 세우기

새내기사업에 대한 핵심기준 설정 새터를 중심으로 한 새나기사업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의식화 내용, 의식화·조직화·발도, 새나기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할 것인가, 흐름을 어떻게 짤 것인가 등등) 새터 구체화된 목표를 짜기 단체 및 과에 내용 제안하기

### 3) 새터 조직화

여러 방도를 통한 조직화 새터 신진 홍보 작업 중앙운영원, 단체/과 일꾼들에 대해 새터 신진 및 조직화 점검 새터 후속작업에 대한 계획 세우기

### 4) 새터 실무자 준비 및 새터 성사

### 5) 새터 후속작업

## 별첨1. 단체, 총학생회 등에 새나기사업 내용과 지원 제안하기

사합니다. 이도 남자를 사하기 요구하는 획일적 모습으로 그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기에 여학생들이 위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영미인대회를 진행하는 단위에 들어가서 토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새나기 신입생현영회 등 학생회 행사에서 여영미인대회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합니다.

### 3. 혼속을 금지합니다!

혼속 문화는 그야말로 성폭력의 징이 됩니다. 늘상 몸조심 할 것을 귀가 달도록 들어온 여학생들은 혼속이란 것이 낯설을 뿐 아니라 두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먹여놓은 데다가 남학생과 같이 자지나 마음이 놀라기 없죠 더구나 '술이 취해서 모르겠다'라고 발뺌한다면 남강한 일입니다.

혼속을 금지하는 것은 새터 성폭력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지, 사전교양을 통해서 여학생, 남학생 모두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새터 일정이 시작되기전 사전교양 시간을 갖고, 속속을 따로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방이 하나일 경우는 꼭 경계선(간)을 만들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규칙을 따르지 않고 혼속을 한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경우 꼭 비판하고 잘못을 깨우쳐줄수 있도록 교양합니다.

### 4. 새터 주제 회의 성교육!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새터를 기획할 때부터 새터 때 성문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합니다. 이제까지 새터 때에 어떤 성폭력이 있어왔는지, 그 성폭력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폭력 해결을 위해 새터를 어떻게 기획해야하는지 등 새터 전반적 기획에 있어 성공된 문화를 고민해 나감도 좋습니다. 그러어만 전 시기 새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적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터를 기획하는 주제모임을 할 때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대학 전체로 진행하는 과외모임 등을 통해 새나기사업 주제 전체 모임을 성교육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제정합니다. 고려대 빈대 등 여러대학의 예가 있습니다. 자치규약을 토대로 새터 때 성문화 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새터 성폭력 척결을 위한 행동지침을 합의합니다.

### 5.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 구성

새터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단(대)별로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을 통해 단(대)별로 새터에 참여하는 단(대) 구성원들에게 성폭력적 상황에 대한 재인식을 도모하고 성폭력 사건이 발생 시에(아) 적도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해결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학생단위와 함께 새터 성폭력 모니터링팀 구성에 대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겠죠.

### 6. 술을 억지로 강요하는 문화를 만들지 맙시다!

대학생들의 문화에서 술문화는 빠지지 않고 접하는 것입니다. 한해도 몇 몇 과외도 술때문에 죽어나간 사건이 있을 정도로 아직도 술을 강요하는 마시게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론 술자리는 사람이 술적인 얘기를 하게도 하고 서로 친해질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의 권위를 내세워서 아직 술을 많이 마셔보지 않은 새나기들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는 문화는 개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것을 강요하는 기부장적 문화일 수 있습니다. 술은 권할 수 있지만, 억지로 강요하는 문화는 없앨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 7.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끼어앉히는 행동이나 음담패설을 하지 맙시다.

대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일어나진 않지만 언젠가는 술자리는 분위기를 빗자하여 술따르는 여자가 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좋다는, 남자와 여자가 섞여있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또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술자리 분위기가 망친다는 이유로 기절하지 못할 분위기를 만들어버리고합니다. 이는 여성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노예화시키는 사회의 종지없는 풍토를 대학사회까지 가져오게 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E.D.P.와는 연관이 표현되는 음담패설은 언어적 성폭력중의 하나입니다. 특히나 대학이라는 자유스럽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성폭력입니다. 변태적이고 아한 이야기에서부터 여성비하, 남성비하 발언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음담패설의 실각성은 생활상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때그때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는 이가 적응으로 인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별첨2. 여학 새터를 하는 경우와 새터를 하지 않는 경우

### 1. 새터를 하는 경우

(덧붙여 아주 기묘하지만 미스터리해리는 것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여학생들이 남장을 해서 미인대회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도 다름아 없습니다. 여기서 여학생들은 남자를 유락부락한 근목르프한 말투,여자를 핑계 하는 눈빛으로 모



더라고 고민하는 경우이다. 한마디로 괴어학성회(부) 또는 총어학성회에 대해 크게 신뢰를 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도사업 하는 간부가 과집행부내에서 신뢰를 쌓아야한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면서 신뢰를 쌓는 것은 사업과 투쟁의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과행사가 있을 때 함께 도움을 주고 학교 전체적으로 사업과 투쟁이 진행될 때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서부터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다.

-구체적 1년 사업목표와 계획을 이야기해주어야 한다.

무조건 신뢰만 쌓는다는 바로 세운다고 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총어학성회에서 단과대학학생회에서 1년동안 어떤 목표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 해주어야한다. 그래야만 우리 괴어학성회(부)에서도 함께 하면 되겠구나 하는 구체적 고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지도방법과 지도내용에 대해 과집행부와 토론하고 합의한다.

총어학성회나 단과대 여학생회에서 실제 아주 일차적으로 지도하기만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한 간부가 단과대 여학생회와 괴어학성회(부)를 몇 개씩 맡다보면 더더욱 어려워진다. 이때는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 어떻게 만나고 지도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합의한다던 더욱 힘있게 지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괴어학성회(부)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어떻게 1년동안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야한다.

## 6. 괴어학성회(부)는 어떤것을 지향하는가.

### 1)목표를 설정하자.

대학에서 괴어학성회(부)를 세우는데는 목표가 정확해야한다. 특히나 한정된 일군들이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하는 여학생회는 더더욱 그러하다. 일단은 대학의 여학생운동 현황을 파악하고 괴어학성회(부)를 세우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한다. 말하지만 우리학교의 여학생운동이 발전하기 위해서 조직사상적으로 어떠한 과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강화해야하는지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총어학성회만 있고 단과대 여학생회, 괴어학성회(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이런 경우 무조건 괴어학성회(부)만 세운다고해서 될 수가 없다. 단과대 여학생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면서 괴어학성회(부)를 세우는 사업들을 조금씩 병행해서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올해는 단과대를 3군데 세우고 괴어학성회(부)를 3군데 세운다. 다음해는 단과대를 5군데 세우고 괴어학성회(부)를 10군데 세운다 등으로 이렇듯 학교 대학생운동의 2-3년간의 장기적 목표와 계획속에서 진행되어야한다. 2-3년간의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긴다음 올해의 목표와 계획을 그것에 맞게 세워내는 것이 중요하다.

### 2)사업과 투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

총어학성회는 단과대 여학생회는 괴어학성회(부)랑 항상 동고동락해야한다. 무슨일을 하더라도 괴어학성회(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의 투쟁을 하더라도 심지어는 술한잔을 하더라도 항상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생겨나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 3)과학성회와 단과대 여학생회가 올바른 지도와 총화를 하자.

괴어부 모범 총화로 그 모범이 전파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 대학별로 기층 강화사업을 고민하면서 괴어부를 발전 시킬려고 하고 있다. 괴어학생부 발전 특별위원회(괴어발특위) 및 괴어부까지의 확대운영 및 지도사업을 내실있게 가져가는 여러 방안이 그간 제출되었다. 이것의 성과를 계승하여 기층 괴어부를 강화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괴어발특위 모임을 가져갔을 경우 성과는 총어에서 직접 기층을 지도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어학성회 사업과 투쟁을 기층총학우들의 의식흐름에 맞게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기층일군들이 직접 학우들과 총어학성회 사업을 풀어나가는 성과가 있지만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 진행되었던 모임의 내용에 대해서 단과대학성회나 과학성회와 총화를 잘 하는 문제이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임 총화서를 가지고 직접 단과대 과학성회에 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괴어학성회(부)발전 특별위원회 또는 괴어학성회(부) 주체모임

기간 여학생운동의 과정을 평가하고 전망을 내보았을때 괴어(부)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는다. 괴어부의 재지리 찾기는 여학생운동의 대중성 확보와 조직강화의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체를 꼭 마련해야 하며 주체가 마련되지 못하더라도 괴어부에 대한 고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사람을 꼭 꾸려야한다. 여학생회는 총어-단과대학성회-괴어부의 전일적인 체계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간다. 다시 말해 단어를 지도하여 그 단과, 그 과에 맞는 (단과별 특성이나 현실적 역량에 맞는)괴어부 사업의 내용을 생산하여 구체적으로 그 괴어부장의 역할을 높이면서 운영이 되고 총어는 바로 이러한 단어의 활동을 총화하고 어려운 점을 지도한다.

그러나 단과 여학생회의 건설이 미비하고 그 역량이 부족하여 괴어부를 잘 지도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래서 총어학성회에서 괴어부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

### \*괴어발특위원?

-괴어부의 지도에 있어 단어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총어학성회가 직접지도를 하는 공간이다.

-괴어부 내용생산에 있어 현재 활동중인 괴어부장들의 고민과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다.

-내용생산이후 활동을 직접 총화하여 이후의 대안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모범파를 발굴하여 이 모범을 전파하고 괴어부 사업으로 정착화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어의 괴어발특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수도 있다. 그것은 총어학성회 운영위를 통해 괴어발특위 내용을 각 단어에 총화하고 지도내용을 분공한다. 즉 총어학성회는 정책과 사업내용을 생산하고 단어는 괴어학성회(부)를 직접 현지지도하고 또한 과학성회와 연계하여 지도한다. 그리고 단어 운영위를 통해 그 모범을 전파 보급한다.

### \*구체적인 운영

학성의 선거이후 괴어부 건설관련 사항 총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중 괴어부장의 적극성이나 의식성, 과학성회에 대한 관심정도가 많은 어부장을 단과대이 몇명정도 류어세워 괴어발특위를 조직한다. 그 어부장들을 중심으로 예비모임을 시작하여 방중에 단과사업을 시작한다.

## 7. 괴어학성회(부)는 무슨 일들을 해야하나요? (괴어학성회(부) 계획의 여

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과의 실정에 맞게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학우들 모두의 인식을 확 바꿔보겠다는 욕심보다는 여유있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사업사업은 모든 사업 모든 운동의 결정체입니다. 어부원들과의 지리도 많이 만들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게요. 그리고 1년 평가또한 잘 해서 넘겨줍시다.

### ◎사업목적

1. 여성문제를 알리내고 여학생부 주위로 여학우를 묶어낸다.
2. 여성문제, 특히 학내의 과에서 있는 여성문제를 인식하고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과학성회를 중심으로 남학우 여학우가 함께 공동체 문화, 토론문화를 일구어 나간다.

### ◎사업과제

1. 괴어부의 올바른 지리매김
2. 과내 올바른 성문화 정착
3. 사회의 여성의 삶을 알아가기

### ◎사업내용

#### 1)정치적이고 꾸준히 해야할 사업

▷여성문제에 대해 알고자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대비부 쓰기

방법: 여성문제에 대해 알고자 올바른 인식을 가져가기 위한 준비부 쓰기

장소: 과학우들이 많이 있는 (과전공강의실, 과학화실 등)

내용: 월별로 한가지 주제를 정하여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시기별로 이슈화된 내용이 좋겠다. 우선 자료수집, 정리하고 어부원들과 토론해보고 그 결과물을 낸다. 예를 들면 성폭력의 원인 및 실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간다든지, 이북여성 바로알기든지 취업과 관련된 내용도든지 등)

▷어학성부 소식지 발간

내용: 여학생회 사업공유, 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소식들, 학우들의 진솔한 글, 내가 느끼는 여성문제, 함께 고민하는 여성문제, 학우들 생일 생기기 등

▷타카소 방문

나도 예비 여성노동자! 우리도 커서 아이를 낳을텐데 타카소문제는 나의 문제, 정치적인 타카소 방문으로 과학우들과 여성노동자의 2중고통을 알아보자. 굳이 타카소가 아니더라도 원거의 실천활동을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만들어나가면 좋다.

▷실문조사  
괴어부에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한 몫 단당의 할 실문조사는 소식지 발행에 맞춰 과학우들과 과 어부 사업도 평가하고 의식도 묻는 좋은 방법

▷책들읽어주기

흔히들 여성학에 관련된 도서는 잘 읽지 않는데 여학생부에서 정기적으로 어부원들과 독서토론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감상글을

적어 게시하고 학생회실 안에 비치하여 돌아가면서 읽어본다.

### 2)가치있게 진행하는 사업

▷새로배울터와 수련회 때 : 괴어부 소개,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MT때 어부내용 정리 등

▷어학우 대면식 : 여학우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더불어 학생회로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자리

따로 대면식을 하기 어려우면 수련회 때 1시간쯤 자리를 내는것도 좋다.

▷과의 날, 과 대동풍이 : 1년 사업을 학우들과 대중적으로 평가하고 전문 내용을 다루는 것도 좋겠조.

인식극, 기획거리, 어학우 체전 등

어학우발서총대회, 남학우과일깎기대회 등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내용들도 하면 좋다.

▷학술제 세미나, 작은 토론회

방법: 과내에서 외부강사를 섭외하고 이후 토론

내용: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기: 한 학기에 한번정도

▷비디오 상영

시기: 한학기에 두 번정도

방법: 전공강의실을 빌려 수업 끝난후 함께 토론

미리 어부원들끼리 영화를 보고 감상문이나 영화소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학우들에게 나눠준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다.

▷농활 - 여성농민과의 연대활동

### 3)사람 사업과 관련된 사업

괴어학성회(부)도 어느 사업, 어느 운동과 다름없이 사람을 낚는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과 투쟁을 잘 진행했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 때 그 다음해의 주체 측 사람이 남지 않는다면 실제 성과가 계승발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고민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1년 초부터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1년내내 진행해야지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사람을 낚길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을 꾸릴 때 : 자신감을 가지고 만난다.

일단 한 두명이라도 꾸러지면 모임을 한다.

모임은 정기적이고 꾸준히 진행한다.

어부원들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준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여유를 가진다.

▷사람이 꾸러지면 : 여성문제와 관련된 학술, 토론진행

활동적이고 성과점이 눈에 진행한다.

활동내용은 꼭 학우들에게 공개하여 학우들에게 어부 사업도 알리고, 여성문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부원들에게도 보람을 준다.

▷괴어회(위원회) 또는 함께 묶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할을 주자

- 학습주체 : 학습할거리를 고민하고 학습내용에 대해 학우들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

- 선진주체 : 선진할거리를 고민하고 선진내용 초안을 작성하여 다함께 선전을 진행하여 학우들에게 알려내는 주체

- 정보통신주체 : 진행하는 사업과 투쟁을 피케시미나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괴어학우들 이메일등을 관리하는 주체

- 기타 : 총무, 여학생회(부) 비품관리주체 등